

곡성 '내가 만난 첫번째 문화유산 사업'... 명예의 전당 등재

2015년부터 마천목 장군 도깨비 주제 세미나·포럼 진행 사당·예장묘 지정 문화재 등록한 뒤 도깨비학회도 창립

곡성군이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내가 만난 첫 번째 문화유산 사업'이 2023년 지역문화유산 활용 우수사업 시상식에서 16개 지자체 중 우수기관 11개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또 3년 연속 우

수사업에 뽑혀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곡성군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마천목 장군의 도깨비를 주제로 국제 세미나와 포럼을 진행했으며 사당과 예장묘를 지정 문화재로 등록한 뒤 도깨비학회도 창립했다. 5월부터 12월까지 마천목사당, 도깨비숲길, 섬진강 도깨비마을에서 '내가 만난 첫 번째 문화재'를 운영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동화

책과 인형극을 개발해 문화유산을 처음 접하는 어린이들에게 선보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밖에도 도깨비 굿판, 도깨비 세레나데, 도깨비 난장판, 요들, 인형극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즐기는 도깨비잔치와 1박 2일 행사, 도깨비를 주제로 한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문화재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광객에게 선보여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다"며 "내년에도 지역의 문화재가 전국에 알려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곡성=양혜영 기자



장성군, 민원 담당자 상황 대응 역량 강화

장성경찰서 합동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추후 읍면도 자체 추진

장성군이 군청 1층 민원봉사과에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대응 조치 단계에 입각해 장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민원인 폭언 상황이 발생하면 담당자는 먼저 폭언 중단을 요청하고 민원인의 진정을 유도한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사전 고지 후 보호장비를 통해 상담내용 녹음을 시작한다. 이후, 민원 담당자와 방문 민원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비상벨을 눌러 경찰을 호출한다. 민원인을 출동 경찰에 인계하고 나면 상황이 종료된다. 장성군은 이 같은 모의훈련을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장성=김수권 기자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 성과 공유회 개최

구례군은 12월 14일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2023년에 추진한 8개 사업 분야의 교육생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열렸다. 참여자들은 올해 많은 호응을 얻은 마을해설사 양성 교육, 창업지원 세포마켓 교육, 주민 주도형 꽃채운 국화 전시회 등까지 다양한 성

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사업 준비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성과 공유회에는 지역 상인, 창업 예정자, 교육 수요생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내년도 사업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구례=박진호 기자

담양 '행복택시' 76→83개 마을로 확대... "소외지역 교통복지"

내년 1월부터... 한 사람당 월 6차례

담양군이 내년 1월부터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행복택시 대상마을과 사업자를 확대키로 했다. 15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행복택시 운영 관련 설명회와 대상마을 기초조사를 마무리하고, 담양군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으로 거리 기준을 마을회관에서 인근 버스승강장까지 0.5km에서 0.4km로 완화했으며, 이를 통해 7개 마을 주민이 추가로 해

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담양군 행복택시는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가운데 버스승강장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마을에 사는 주민 중 자동차가 없는 65세 이상의 주민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택시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용요금은 가까운 승강장까지는 100원, 읍·면 소재지나 가까운 전통시장까지는 1000원이며, 한 사람당 월 6차례(동일세대 대상자 2명일 경우 총 8차례) 이용할 수 있다. 군은 이달 중 각 읍·면에서 대상마을 주민 신청을 받고, 택시사업자 신청과 협약 체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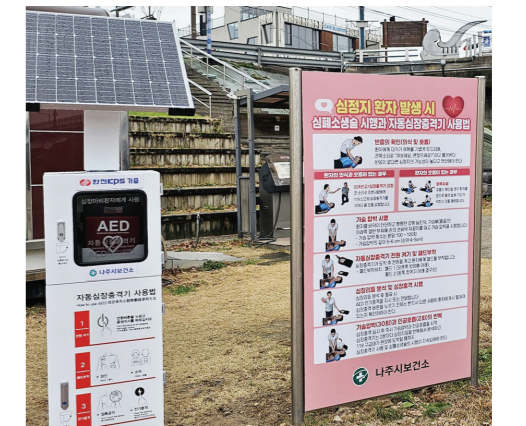
시행 전 사전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군은 2016년 27개 마을 246명, 2017년 36개 마을 403명, 2018년 49개 마을 691명, 2021년 76개 마을 748명 등 행복택시 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병노 군수는 "이번 확대로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대중교통의 이용객 서비스를 향상해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나주시, 실내 아닌 '옥외형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실용성 UP

한전KPS 설치비용 2천만원 지원... 빛가람 호수공원 등 4곳 설치

나주시는 한전KPS의 지원을 통해 심장지 등 위급 상황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응급 처치 기구인 자동심장충격기를 공원 4곳에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는 다중이 이용하는 빛가람 호수공원 2곳, 대호수변공원, 영산강 둔치체육공원 등 실외 공간에 설치됐다. 충격기 설치에 한전KPS 기부금을 활용해 이뤄졌다. 한전KPS는 지난해 12월 나주시와의 혁신도시 이전기관 실무자 간담회에서 충격기 설치를 제안받고 흔쾌히 설치비용 2천만 원을 시에 지원했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심장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강한 전기 충격을 줘 심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응급

처치 기기다. 특히 실내용이 아닌 옥외형으로 설치돼 응급상황 시 사용 접근성, 실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내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 총 227대로 향온·향습 유지가 필요한 기기 특성상 모두 실내에 설치돼있었다. 실내용 충격기의 경우 섭씨 0~40도(°C)에 보관해야 해 실외에 둘 수 없다. 반면 이번에 설치된 옥외형 충격기는 기온 변화 감지센서, 향온 기능이 탑재된 태양열 보관함을 활용해 실외에서도 보관·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실용성 높은 응급 처치 기기 설치에 도움을 주신 한전KPS 임직원



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나주=기동취재본부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 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 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

